

알프스 3대 북벽 아이거 등반일지

29기 최행준

전남대학교 산악회

◆ 1993년 7월 28일 (수) 맑음

오늘과 내일 모래까지 날씨가 안좋고 정상부위는 눈이 내린다는 기상예보는 어디가고 오늘부터 3일간 날씨가 좋단다. 어제 기차로 도착했는데, 그리고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쉬고 있는데, 이동이란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 벌써부터 아이거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일까?

심호흡을 한번 해본다. 별 효과가 없다(16:00).

등반장비를 모두 챙기고 철길 옆의 소로를 따라 북벽 쪽으로 이동한다. 경치한번 죽인다. 두량씩 4차례의 기차가 동시에 그린델발트 쪽으로 내려간다. 2~3일후에 저 기차를 탈 수 있게 될까? 내려가면서 첫 번째 역에서 철로를 건너 북벽 밑의 초원을 가로질러 오른다.

잠시 휴식하면서 B.C에 남아있는 준연과 교신한다. 마터호른과 그랑드조라스에서 느꼈던 무전불통으로 인한 필요없는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무전기의 핸드 마이크를 배낭 멜빵에 아예 고정시켜 두었다. 따라서 굳이 무전기를 꺼내기 위해 배낭을 벗을 필요가 없었다. 영진전문대는 막차로 아이거반트역으로 올라간단다(18:00).

북벽밑의 낙석없는 곳에 ABC를 쳤다. 임우근, 고일주, 문귀현 대원은 식사준비와 공격조 식량을 챙기고 나와 두인이는 북벽스타트 지점에서부터 픽스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북벽을 올랐다. 눈이 왔을때는 설벽이었음직한 너덜지대를 따라 입구침니로 보이는 설사면 두개중 좌측 설사면으로 올랐다. 북벽하단과 1설원 밑으로 낙수가 심했다. 등반중 옷이 젖을 것을 생각하니 앞이 아득했다. 8.4mm 100m 자일을 첫 번째 설벽이 있는곳까지 설치했다. 50m쯤 되는 설벽을 오르니 동판이 보였다. 벽에 하얀 동판이 보이고 (일본어 같아 보인다),벽사이 넓은 크랙안에는 떨어져있던 동판이 보였다.

1피치를(50m) 등반했다. 동판옆에 넓은 크랙(5m) 지그재그로 폭포 좌측벽까지 50m를 끊고 픽스한후 두인에게 알리고 T설계까지 프리로 올라가 본다. 자일 없이도 충분히 연등가능하다. 50m, 100m 자일을 낙수에 젖지 않게 픽스후 ABC까지 하산한다.

저녁을 먹구 등반장비와 등반식량을 챙기는데 비명소리가 절로 나왔다. 내 등반 식량을 B.C에 두고 온 것이었다(단팔죽,.....).

급히 B.C에 무전을 쳤다.

“준연아 심심하지? 할일이 생겼다.텐트안에 있는 등반식을 찾아 보아라”

“남은 것인줄 알고 다 먹었습니다” 북벽에서 굶을 일이 꿈만 같다. 별 수 없이 ABC에 남아 있는 모든 식량을 동원하여 등반식을 챙긴다. 일류 호텔의 뷔페에서 선술집의 멀치 대가리로 등반식이 든갑한 셈이다.

우짜노! 내 잘못인데.

B.C에 교신해 보니 영진 전문대팀은 아이거반트역에서 내려주지 않아서 융프라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B.C에 있다고 한다. 올라가면서 기차가 안서니까 내려가면서 멈추

는줄 았았었나보다. 내일 새벽 두시에 출발해서 갯도입구까지 간다고 한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하지만 웃고 말했다. 그린델발트의 야경이 눈에 들어온다. 멋있다. 광주의 야경도 저 정도는 되겠지. 하지만 이곳 보다는 운치가 없으리라. 하늘에는 별들이 초롱초롱 빛난다. 모래 저녁부터 날씨가 흐린다니까 1박2일에 해치워야한다. 지원조는 밖에서 비박하고 귀현이는 공격조의 아침을 준비한다.

◆ 1993년 7월 29일 (목) 맑음

지원조가 깨운다(01:50). 잠은 쏟아져 미치겠는데 10분동안 악착같이 게겨본다. 알파미와 라면으로 대충 아침을 먹구 주섬주섬 옷을 챙긴다(02:10). 성능 좋은 일본 내쇼날 리튬 랜턴은 이미 건전지가 없어진지 오래됐고 국산 에코로바를 사용한다.

지원나온 대장님께 출발보고하고 북벽의 입구 침니를 향해 출발한다. 어제 암벽화로 글리세이딩한 자국이 랜턴빛에 보였다. 공격조인 일주와 잠시 휴식한 후 픽스로프를 따라 출발한다. 먼저 쥘마링으로 오르고 일주가 하켄을 회수하며 오른다. 하켄과 T.C.U 등 대부분이 픽스로프 고정에 사용되었으므로 어프로치할 때 장비의 무게에 대한 귀찮음은 없었다.

100m 픽스로프를 다 오른후 자일을 풀었다. 밑에서 대기중인 귀현이가 회수할 것이다. 50m 설벽을 올라서니 50m 등반자일이 보인다. 조금 힘든 5m를 돌이서 쥘마링한 후 끝자일을 일주에게 묶고 50m 고정 자일을 따라 하켄 두개에 픽스되어 있는 끝까지 오른다. 나머지 끝은 내 벨트에 묶고 등반이 끝날 때까지 풀 일이 없기를 바랐다.

어제 정찰해 두었던 T설계(Triangular Snow Slope)까지 오르니 날이 밝기 시작한다. T설계까지는 군데군데 슬링달린 하켄이 보였고 코스가 여러군데 있는것처럼 생각된다. 우리는 갯도입구까지 직선으로 오르기로 했다.

이제 암벽화로 같이 신으니 지원조 무전기는 불통이다. B.C에 교신하니 영진전문대는 아직도 자고 있단다. 벌써 5시가 다 되는데, 첫기차로 아이거 받트까지 간다.

T설계를 출발하여 푸석바위 지대를 올라간다. 홀드에만 조금 신경쓰면 연등을 할 정도이다. 기존코스에서 약간 우측으로 틀면서 계속 연등한다. 써치라이트 전등이 보인다. 올라서 보니 갯도 입구이다. 안쪽과 바깥에서 열 수 있게 되어 있는 나무문이다. 열어보니 기차레일이 보이고 기차소리가 울려 온다.

문을 닫고 좌측으로 고정로프와 눈을 따라 50m쯤 트래버스 하니 좌측으로 15m쯤의 침니가 보인다. 하얀색 픽스로도 침니사이로 보인다. 침니까지 가지 않고 곧바로 직상해서 다시 좌측으로 트래버스해 나간다.

우측 45° 상단으로는 일본직등 루트를 표시하는 외줄 자일이 픽스되어 있고 좌측 상단에는 조그만 버트레스 형식의 트랙이 보인다. 좌측 상단으로 계속 연등하니 힘든 크랙에

닿는다. 고정자일이 세가락 있는데 상태가 양호한 보라색 자일에 쥘마를 걸고 오르기 시작한다. 한피치쯤 된다. 오버행을 짧게 끝낸후 3피치를 연등한후에 말로만 듣던 힌터슈토 이셔 트래버스에 도착한다.

북벽이 기지개를 켜다. 밤새 얼어 붙어 있던 돌맹이들이 하나같이 크고 작은 탄두 비행 굉음을 내며 북벽 아래로 투신한다. 우리를 반기는 인사치고는 너무 소름 돋는다. 픽스로프가 두세가닥이 있다 한가닥은 태아의 탯줄처럼 나머지 자일을 감으면서 연결되어 있다. 군데군데 자일이 금방 끊어 질 것처럼 하얀 속살을 드러내 놓고 있다.

아! 헤크마이어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 등산가들이 어떻게 통과했을까? 픽스로프 가 없다면 정말 힘든 코스임에 분명하다. 트래버스 상단부는 크랙이 좌측으로 이어져 있고 (니스라고 보는게 옳을 것 같다), 30m 죽히 뒀음직한 하켄이 3개 보인다. 벽 전체가 약간의 회색을 띠었고 얇은 얼음으로 도배되어 있다.

일주는 한쪽은 암벽화, 한쪽은 비브람을 신는다. 아마도 이정도 등반속도면 오늘 중으로 정상도 문제없을 것 같았다. 분명히 오판이었지만...

1설원은 사실상 우측 상단부만 루트에 포함돼있다. 1P를 오르니 1설원 우측상단에 하켄 2개가 보이고 (우리 위치에서는 바로 머리윗쪽) 오르는 길의 우측으로는 낙수로 염려했던 아이스호스, 수정관 통로가 보인다.

암벽화와 바브람을 각각 착용한 일주가 얼음을 만나면 고전을 면치 못한다. 나는 올라가자마자 아이젠을 차고 정신없이 얼음을 찍으며 올라간다. 불뚱이 튼다. 수정관 통로라고 해서 침이나 꿀르와르 형식인줄 알았는데. 약간 좌측으로 휘어지는 듯 한 70~80°의 벽이다. 1P 더 끊고 오버행을 넘어서니 하얀 2설원이 우릴 반긴다.

일주가 암벽화를 신은 관계로 2설원 상단부까지 직등하여 픽스시키고 쥘마링으로 오르게 한다. 두발이 모두 미끄러지며 쥘마링하는 일주가 무지하게 짠해(불쌍해)보인다. 작은 낙석들이 일주를 향해 달려든다. 더 큰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즈음 쥘마링을 끝냈고 게으른 영감! 비브람 신겠다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는다. 다시 1P 좌로 트래버스 아까 쥘마링이 힘들었는지 뭐좀 먹자고 한다. 남아있던 찢감자를 모두 먹어치우며 나머지 비브람을 갈아 신는다.

연등하면서 좌측으로 계속 트래버스 한다. 2설원과 3설원이 곧바로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Flat Iron이 저것인가? 2설원 좌측 상단에서부터 3설원 우측 하단부까지 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Flat Iron이 었다. 몇 개의 하켄이 우리를 유혹 하나 낙수를 피해서 오버행 하나를 넘는다.

그리고 하얀거미 양다리가 고드름처럼 매달린 직벽 거의 밑까지 좌상으로 트래버스해 간다. 사람 한명이 죽히 누움직한 눈밴드를 기다시피 통과하니 죽음의 비박지라 여겨지는 것이 나타난다. 오버행으로 이루어져 TDmsk 낙수가 심하다.

죽음의 비박지를 돌아서니 좌측으로 제 3설원이 보이고 드디어 램페가 보이기 시작한다

(20:00).

워터폴크랙까지 가서 비박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을 것 같다. 3설원을 횡단한 후 램페초입의 비박지에 도착하는 순간 굉음이 들려 뒤돌아 보니 우리 지나온 3설원 발자국 위로 하얀거미에서 떨어진 것 같은 일련의 눈덩이와 낙석들이 떨어져 내린다.

기막힌 시간차였다.

기존하켄에 픽스하고 하켄을 3개더 친 수에 자일을 고정시키고 장비와 식량을 몽땅 꺼내어 자일에 건다. 빈 배낭을 깔고 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발보다도 엉덩이 시린 것이 더 질색이니까. 비박지를 만들고 젖은 몸을 비박썩에 구겨넣은 후 B.C와 교신을 한다. 무전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요들송을 두가락 들은 후 취침한다(23:00).

◆ 1993년 7월 30일 (금) 맑았다 흐림

게으른 두 놈이 자일을 묶더니 결국 일이 터졌다. 늦잠을 잔 것이다. 그 추위에 떨면서도 늦잠이라니. 부랴부랴 짐을 정리하고 램페를 오른다(07:10).

20m쯤 연등한 후 1P를 끊는다. 상태는 양호하다. 1m 쯤 되는 설벽을 따라 믹스클라이밍을 한다. 다시 2P를 끊으니 물이 흐르는 얼음 발린 워터폴크랙이 나타난다. 램페를 따라 길이 두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좌측 3m지점에 픽스로프가 있어서 그쪽으로 오르기도 하고 끝부분의 오버행까지 래더까지 사용해서 겨우 1P를 끝낸다.

잠시 휴식 후에 6m쯤 되는 오버행 설벽을 반침니 형식으로 겨우겨우 올라서니 램페설원이 보인다. ABC에 두고온 픽켈이 무지하게 아쉬웁다. 설벽을 따라 20m쯤 올라서니 램페설원의 우측이 열리듯이 넓어지면서 비박가능한 장소가 보이고 브리틀 릿지로 연결되는 흰색 고정로프가 보인다.

대장님 지시대로 중요한 부분을 통과할 때나 루트 확인에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올라간다. 36판이 다 되어서 필름을 제거하고 새 필름을 넣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새 필름 같은데 조금 튀어나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없다. 아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런 6.25 사변이 있다.

7m쯤 간격으로 슬링달린 하켄이 보인다. 우측으로 신들의 트래버스가 나타난다. 설벽중앙에 좌우로 바위가 돌출 되어 있고 얼음에 발려 있다. 우리는 설벽상단부에 붙어서 하켄을 치며 우측으로 트래버스한다. 50m 자일이 팽팽해질 정도로 나아가니 확보지점이 나타난다. 아차하면 10m 쯤 미끄러지다가 300m쯤의 직벽에 매달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구름위에서의 신선놀음 같다. 1P를 끊은 후부터는 계속 연등한다. 신들의 트래버스 우측 돌출부를 돌아서니 하얀거미 좌측 발톱 윗부분의 설벽이 보인다. B.C에서는 300mm 망원렌즈로 하얀거미를 대각선으로 등반하는 우리를 촬영하려 하나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다.

실재없이 떨어지는 낙석 때문에 뛰다시피 하얀거미를 연등하여 계속 엑시트크랙 2P를 넘어선다. 잠시 쉬면서 일주가 불일을 불러다가 말고 일어선다. 정찰헬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모든 준비를 끝내고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북벽의 대탈출이 시작된다. 말 그대로 탈출크랙 1P를 연등한 후 1P 더 끊으니 전체적으로 볼때 큰 꿀르와르 속에 작은 꿀르와르가 4개가 있다. 왼쪽으로 트래버스 할수 있는 픽스로프가 있고 여기를 따라 끝까지 나아가니 정상으로 통하는 리스가 나타난다.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고 있다. 픽스로프가 끝나자마자 약간 좌측으로 계곡처럼 생긴 곳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물은 계속 흐르지만 아이스바일은 그런대로 먹어준다. 10m~15m 마다 슬링없는 하켄이 있고 3P를 끊으니 엑시트설원이 펼쳐진다.

엑시트설원은 10cm정도는 푸석거리는 눈이고 속은 강빙이다. 얼마나 단단한지 아이젠 프론트가 1cm 쯤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것이다. 바일 한 자루에 의지해서 프론트 포인팅으로 오른다. 설벽 군데군데 암반이 나타나지만 하켄을 칠만한 크랙이 없고, 설혹 하켄을 쳤다고 해도 손으로 한 번 당기면 힘없이 빠져 버린다.

슬립의 공포 때문에 개스가 차오르는지도 모른다. 무전기에서 B.C의 교신이 날라온다. “오늘 저녁부터 폭풍우가 몰아치니 되도록 오늘내로 정상을 통과하기 바란다” 폭풍우? 그럼 뭐냐? 번개가 친단 말인가? 마음이 급해진다.

악세사리처럼 몇 개의 하켄을 설치하면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올라서니 드디어 능선에 설 수 있게 됐다. 온몸이 젖는다. 눈과비, 진눈깨비, 우박이 째뽕으로 내린다. 각자 자기 벨트에서부터 15m쯤은 자일을 사려서 배낭에 쑤셔넣고 썬트능선과 만나는 곳까지 걸어간다.

설벽의 경사가 만만치 않다. 커니스 역시 안개 때문에 분간기 힘들고 무릎까지 빠지는 신설 역시 우리의 정상으로의 탈출을 방해한다. 한참을 오르니 썬트 능선과 만난다. 저만치 정상으로 보이는 설봉이 보인다. 가끔씩 안개가 걷히면 봉우리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필름, 필름만 있었으면.....

200m 쯤 될 것 같은 정상이 왜 이리도 먼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날카로운 커니스가 우리의 발길을 더디게 한다. 북벽쪽으로 건너가다가 남벽쪽으로 붙다가 또는 말을타듯 칸테등반으로 나아간다. 거의 평지를 트래버스하는 기분이다. 얼마나 갔을까? 안개가 잠시 걷히면서 우리의 하산루투인 서릉을 볼 수 있고 제일 높은 곳에서 있다(21:00).

우리의 마지막 목표였던 아이거 정상에 섰다. 필름이 없었으므로 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 필요는 없다. B.C와 잠시 교신 후에 점점 강해지는 눈보라를 피해 서능을 내려가기 시작한다(21:21).

B.C에서 두인이가 서능에 바짝 붙어서 내려가면 피톤이 20m 간격으로 있을 거라고 알려준다. 첫 번째 피톤을 찾았다. 킥드로우 하나만 걸고 내려선다. 바위지역을 통과하면서

5m를 미끄러진다.

두 번째 피톤에서는 하강을 시작한다. 하강 후 아무리 찾아도 피톤이 보이지 않는다. 온통 새하얗다. 안개도 짙어지고 벌써 22:00시가 넘어간다.

조금 더 내려섰으나 피톤은 보이지 않고 절벽으로 이어진다. 별수없이 좌회하여 설벽을 타고 내려선다. 너무 피곤하다. 갈 길은 아직도 까마득한데 두발은 천근만근 무거웁다.

정상에서 300m 내려온 높이에서 비박하기로 결정하고 B.C에 교신한다. 비박지를 겨우 만들고 엉덩이와 등만 빌어 넣은 채 비집고 앉는다. 만사가 귀찮다. 융프라우 위로 등근 보름달이 보인다. 하얀 설월에 반사되어 하산길이 보이는 듯 싶다. 본전 생각이 난다.

◆ 1993년 7월 31일 (토) 눈, 번개, 안개

천둥소리에 눈을 뜬다(01:00). 저 멀리 마터호른이 있음직한 곳에서 파란섬광들이 춤을 춘다. 멋있다. 꿈을 꾸는 듯 싶다. 함참을 자다말다가 갑자기 천둥소리에 눈을 번쩍 뜬다. 이걸 뭔가 다르다. 주위가 온통 환하다. 바로 머리위쪽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눈에 덮인 비박색에서 기어나와 정신없이 장비를 챙기고 밑으로 뛰다시피 내려간다(05:30).

피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함참을 내려간다. 천둥소리가 사라졌을 즈음 안개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 운무 속을 더듬으면서 조심조심 내려간다. 너무 늦다. 아이거글래처 역에서는 여러 대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겠지. 마음은 급하다. 생각과는 반대로 몸은 신중을 기한다. 다 된밥에 재를 뿌리면 안되겠지.

11시간의 악전고투끝에야 겨우 마중나온 귀현, 준연이와 더불어 상봉의 기쁨을 만끽한다(16:15).

휴- 웬수같은 날씨.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좋으면 어디 덧나나. 4시간이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는데, 뛰다시피 하여 아이거글래처역에 도착(16:30).

기다리고 있던 대장님, 두인과도 뜨거운 악수를 교환한다. 이로써 3대 북벽을 모두 마치는구나, 흥가분하다. 17:30분 기차에 몸을 실으니 지난 이틀간의 일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간다.